

# 나를 찾아 어디까지 가 보았는가

獨 최고 작가 한스 크루파 단편집 '마음의 여행자'

“나를 찾아 얼마나 멀리까지 가 보았는가?”  
“마지막으로 떠나 본적이 언제였는가?”  
이 책은 삶, 마음, 영혼, 자각 등 진리는 단순하다는 이치를 간결한 서사구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렵듯이 가슴 한 켠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물음들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독일작가 한스 크루파는 단편집 <마음의 여행자>에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항상 의문을 간직하라. 그 안에 자신만을 위한 지도가 숨어 있다’ ‘삶은 희극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기쁨과 웃음이 솟아나는 샘은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 있다’ ‘마음 대신 이성이란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용기와 열정을 지닌 가슴과 영혼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마음의 여행자>에는 인생에 도움이 될만한 문구가 곳곳에 숨어 있다. 영혼을 사로잡는 주제, 서정적인 문체, 읽은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마음의 여행자>는 뛰어난 상상력과 감수성으로 때로는 과장되게, 하지만 아주 기발하게 진실한 삶의 세계를 보여주는 한스 크루파의 단편집. ‘나비의 입맞춤’ ‘마음의 여행자’ ‘낮선 방문자’ ‘천사의 생애’ ‘시들지 않는 꽃’ ‘보이지 않는 산’ ‘영원한 미소’ ‘웃음의 저로사’ ‘지금 여가 영원으로의 여행’ ‘단순한 열정’ ‘영혼의 예술가’ 등 11편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문체로 그려진다. 인물들은 진정한 삶을 발견하기 위해 일상의 자신과 삶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인간의 탄생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다.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태어나는 것이며,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진정한 삶을 발견하기 위해 일상의 자신과 삶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인간의 꿈과 희망은 너무나도 중요해, 꿈을 따르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끝내 진 껍질만 남을 뿐이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위의 글처럼 그는 말한다. ‘너에게 기대하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가슴의 불을 따르라’고.  
눈 위에 짙은 발자국을 따라가듯 작자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근본적인 요소인 사랑, 자유, 자아실현, 행복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다양한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그려 보인다.  
소설의 즐거움은 마음으로 이사 온 낯선 여인과의 우정을 통해 위대한 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소년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이후 청년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대학을 떠나 방랑의 길을 선택한다.  
소설에 소개되는 우리 모두의 존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산에 오

라고 역설하는 성자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발견한 노인 등이 모두는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세상의 것에 따르지 않고, 자기 가슴의 불을 따르는 아름다운 인간의 전형들이다.  
지은이 한스 크루파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 영어를 가르쳤다. 1981년 첫 시집 <균형>을 발표한 이래 시, 동화, 단편소설, 장편소설, 잠언집 등을 차례로 발표하여, 400편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2004년 오토 마인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마음의 여행자> <영원과 하루> <아만다와 마법의 책> <키이토> <타이만카의 전설> <당신만을 위해> <사랑의 황금 책>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pia.com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머나먼 여행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마음의 여행자  
한스 크루파 지음  
조화로운산 1980원

네티즌강추

답답한 세상 유쾌하게 웃으며 살아가자

현대작가 백서: 대한민국이 배꼽잡는 유머 백서 87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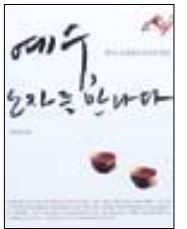
수희재, 유동우 지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좋을 책이다.  
일상에 지쳐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만들어 주는 책이다.  
유머가 화두인 세상에 재미있는 말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친구를 부러워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 요즘 잘 나가는 유머가 거의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작은 판형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은 이점이 매력적일까...  
아무튼 언제든 웃음이 필요할 땐 이 책을 읽으면 될 것 같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엄숙한 무엇이 아니라 유머에 있는 것 같다. 답답한 세상을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리라.  
백서가 사람들 간의 공통점을 부담 없이 확인하며 즐기는 것이라면, 이 책이야말로 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책인 것이다. 백서라는 형식으로 담아낸 의도가 참 신선하다.  
다른 독자분들도 이 책으로 유쾌한 웃음을 누리시기 바란다.  
(seagarden, yes24.com/ReviewCenter)



도덕경과 성서, 맥이 통하는구려

예수, 노자를 만나다 코나투스, 이명권 지음

진리가 진리를 만난다고 할까. ‘도덕경’과 ‘성서’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책이다.  
특히 동양과 서양, 그리스 도교와 도덕경을 통해 새로운 종교적 만남의 시도가 돋보인다.  
노자를 통해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통해 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책.  
신학과 철학을 전공한 지은이가 무위자연(無爲自然)에 입각한 노자의 도(道) 사상을 해석하면서 예수의 정신과 상통하는 맥락을 짚어준다.  
도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측면, ‘무(無)의 쓰임새’와 ‘비움의 형성’, ‘상선약수(上善若水)’와 ‘예수의 길’ 등이 그 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노자의 부자생(不自生)은 그리스도의 ‘자기 부성’에 비유된다. 노자의 눈을 통해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노자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다.  
“무지와 무욕의 실천으로 늘 텅 빈 마음이 될 때 얼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현대인의 삶에 임하는 자세를 되새김질하게 만든다.  
(보슬비, aladdin.co.kr/blog)



책속의 밑줄긋기

○... 그 빛은 이제 너무나 풍성하게 쏟아져서 일체가 그것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빛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이제 참된 생명은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 만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아직 살아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저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인 부활은 여기 이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 하나의 실현된 진리가 된다.  
일찍이 조정되고 통일되고 완전한 조화속에서 각기 서로와 상응한다. 단지 내가 보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내 신체적 자아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면에서는 참된 ‘나’가 고요함 속에 지배하고 있다. 나는 우주의 부(富)를 다 준다 해도 이 고요함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감각 기관들의 세계가 무너질 때에도 상실되지 않을 토대라는 것을 안다. 이 고요함에는 어떤 욕망도 없다.  
-<큰 평안의 시절> 본문 122쪽에서, 탐구사, 마우리 사두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오보인의 책들  
대원 문화재단 신사업역사 / 2007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화재단 전사님  
역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전서(傳書)!

바오보인 전통복 전5권  
바오보인 무문관  
바오보인 벽암록  
바오보인 천부경  
바오보인 금강경  
바오보인 선심명  
바오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오보인 중도가  
바오보인 반야심경  
바오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듣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오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알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젖는 희다

<바오보인 선문염송 8권 출간>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화재단  
전사님역사 <바오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8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간 왕국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발행  
선가귀감 법문 당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오보인 선문염송 9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않은 山寺 참죽 조청 1.2kg  
아열,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건강을 위하여 100% 천연으로만들었습니다

山寺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통산 밀 양

... 배 밖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닫아  
상책로 거듭날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평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속에서-

이 책의 특징 .....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자기발전 · 생활속 수행과 껍투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신표등록: 614981호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발형

미끄럼방지 (논스립우레탄)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전강 슬리퍼

지압형론 슬리퍼 (H) 침수백원단

● 가격: 60,000원  
● 규격: 225-285mm  
● 색상: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보시 하실 분상당 환영

전국매장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율곡서당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6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김윤경승복 054)724-7999